

동계 글로벌챌린저 프로그램

글로벌 식량자원·농업개발 전문인재양성 사업단에서는 시행하는 동계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 기 수혜자 팀인 VODA의 팀원 전재영(13 농업경제학과)학생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. 탐방 목적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이해도 증진이였으며, 탐방국가는 동남아시아권의 캄보디아였다. 탐방기간은 2016.01.21 - 2016.01.27. 총 6박 7일이였다.

▷ 글로벌챌린저 프로그램 탐방기관

KOICA 캄보디아 사무소, CEDAC, KOPIA 캄보디아 사무소, 캄보디아 농업연구소 (CARDI),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교(아래 사진은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견학 사진이다.)



▷ 글로벌챌린저 프로그램 지원동기

전재영(13 농업경제학과)의 인터뷰 : 세계화 정세가 급변하고 글로벌화 되는 시대에 있어서 국가 간의 상호협력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는 국제 정세입니다. 하지만, 국제개발협력이란 영역이 대학생들에게는 생소한 주제라고 판단했습니다. 학교 전공 수업 간에 배운 지식들을 습득 후 우리나라와 타 국가 간의 실무적인 협력의 상황과 정태에 대해 직접 배우고 보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

▷ 글로벌챌린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성과

전재영(13 농업경제학과)의 인터뷰 : 글로벌챌린저 프로그램을 통해 협소했던 세계화적인 시각을 넓힐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을 하였습니다. 특히, 캄보디아의 기관들을 방문을 통해 국제협력의 모습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사고의 깊이과 폭이 넓어졌습니다.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현장의 모습과 이전에 생각했던 모습과 현실 간 괴리의 폭을 줄일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. 필드인 현장을 견학하면서, 교류근황과 현실에 대해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, 이전에 배운 전공지식을 살려 국제협력의 이정표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.

잊을 수 없는 활동은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교에서 현지대학생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었고, 그 때 서로에 대해 알아갔던 것입니다. 우리나라보다 더 부지런하고 일찍 학교를 다닌다는 말에 우리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싶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견문을 넓혔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.(아래 사진은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교에서 찍은 사진이다.)

